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 1051
전화(967)8133

(每月 中旬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產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最大의 봉사
1,最大의 협동
1,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962—5895
967—8133 사무실

丁卯年 年頭辭

團合과 奉仕로서 會勢伸張

○… 多事多難했던 丙寅年도 大過없이 보내고 새로운 所望과 포…○
○…부를 갖게하는 새해 丁卯年을 맞이함에 즈음하여…… 協會任…○
○…職員여러분과 各級分事務所長 그리고 一般모든 會員들께서今…○
○…年에는 各己하시는 事業이 期必코 成就되고 家庭에는 幸運과…○
○…健康이 한층 더 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하여 마지 않습니다.…○

地域別 栽培品種의 選別철저
生產管理 指導 적극성 强調

박만종 회장

돌이켜 보건데 昨年 한해는 輸出好況에 힘입은 產業界는 一般的으로 好景氣를 누린듯 하나 우리生藥業界는 계속되는 不況에주름살이 더 늘었던 해였다고 生覺됩니다。

그러나 모든 會員들이 傳統的인 忍耐와 根氣로서 이를 슬기롭게 克服하고 分野에 別하자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편多幸스럽게 여기고 새해에는 보다더 奮發하여 發展的인 活路를 開拓해볼 覺悟를 새롭게 하고 있읍니다。

지난 年末에 개략적인 종합업무 評價에서도 言及한바 있읍니다만 協會는 무엇보다도 大幅的인 資本誘致및 確保로서 會員들의 소외감과 生產意慾 離脫을 止揚하고 富益富 貧益貧이라는 世波에 밀려 좀처럼 其結實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모든 산하 會員들에게 甚히 遺憾된 일로서 오직 寬容을 바랄 뿐입니다。

이제 지난 過去를 反省의 資料로 삼고 새로운 해를 맞아 새로운 일과 계속발전 시켜야할 일들을 生覺하면서 다음에 其 方向들을 豫定해 놓고 남은 任期中 最善의 打開策을 모색할 所信이오니 모든 會員들께서는 例年과 變함없는 聲援과 支援있으시기를 간곡히 當付드리고저 합니다。

今年度에 指向하여야할 協會 主要事業方針을 例示하면……

▲첫째‖地域別로 栽培生藥品種을 잘 選別하여生產農民으로 하여금 낭패를 주지 않도록 其 指導에철저를 期해야 하겠읍니다。

모름지기 各級 分所長은 우리들의 基本任務인 生藥材의 生產지도管理라는 所任을 깊히 認識하시고 農村지도 役割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數年동안 그렇게 時勢좋던 五味子、枸杞子등도 86年 下半期부터는 점차 下落勢를 보이다가 及己也는 80年度 初보다 낮은 2천8백원이라는 近來드문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枸杞子 亦是 4천원대로 하락하고 있음은 과장 과대적인 현혹선전과 무분별한 욕심에 의한 과잉生產에 연유한다고 判斷할때 더욱더한 協會로서의 指導役割이 緊要한 해라고 生覺됩니다。

▲둘째는‖今年 2月 1日부터 實施되리라는 漢方醫療保險制度에 뒤따르기 爲하여 生產團體 自體의 出荷生藥材標準化 制度를制定하여 能力이 可用한 分事務所 또는 共販場으로부터 逐次的으로 이를 施行해 볼 計劃을 하고 있읍니다。

昨年 11月에 이미 其基本 指針을 言及한바 있읍니다만 今年 上半期 中에는 이를 品目別로 確定지을 豫定이며 이는 需要群들이 他를 제치고 스스로 믿고 찾아드는 製造元으로서의 協會信用度를 크게 높일 것으로 믿고 強力히 推進할 作定이오니 여러 임직원및 分所長께서 積極參與 協調하여 주실것을 當付드립니다。

▲세째‖赴任初부터 원활한 運營資金 및 基本資金을 確保하지 않고서는 會勢伸張을 期約할 수 없고 所任을 다 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 미력을 이部分에 集中해 보았으나 오늘날까지 如意치 못하여 對內外的인 不信을 배제하지 못하는 난감한 實情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希望과 餘力을 다하여 資金運營面에서의 活力을 얻고저 最善의 方法을 모색해 나가겠아오니 任職員 및 各級 分事務所長께서는 보다 더한 支援과 協助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昨年 한해 동안 組織面에서 相當한 伸張을 보았다고 生覺됩니다。全南北을 제외한 各 市·道 分事務所 組織은 그런데로 目標에 가까워져 부임초 120개소 以內의 運營이 現在는 140개소 以上의 運營體制로 伸張되어 行政및 系統出荷 能率만 補完된다면 他組織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組織網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나 아직도 地方別 會員確保및 內實運營面에서 有名無實한 分事務所가 많다고 生覺됨으로 今年에는 기어코 이들을 再教育하고 再整備하여 名實相符한 生藥分野 農村指導所로서 育成 發展시켜 나갈 계획이오니 各級 分所長께서는 會員조직 增大와 周邊非理 그리고 과장과대 남용者를 적발 是正하는데 한층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昨年부터 推進해 오고있는 會員의 權益보호와 生產者로서의 基本任務 정립을 爲한 모종의 未完成된 상태의 成果를 얻고저 하는데 最善의 方法으로 對處해 나가겠읍니다。

이는 地域別 各級分所長들의 自體努力으로 오늘날까지 큰 하자는 없었지만 恒常 우리分野에 물의가 될 수있는 要素가 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政策的으로 解決되어야 할 宿願이기 때문에 今年에는 期必코 좋은 結果를 얻도록 覺悟를 새롭게 하고 있읍니다。

▲여섯째‖事情으로 2—3年동안 空白을 두었읍니다만 教育은 平生이며 늘 반복되어야 한다는 槪念에 입각해서라도 今年에는 會員全體에 對한 中央召集教育을 實施할 計劃으로 있읍니다。

이에 즈음하여 3/4分期中 細部教育계획이 下達되겠음으로 各級 分所長께서는 可及的 新規會員을 많이 確保하고 希望者를 選定하여 所期의 教育成果를 얻을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日本 대만등 生藥分野와 交流를 擴大하여 이分野의 새로운 지식을 얻어 우리會員들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할 것이며 겸하여 輸出알선 기능을 確保할수 있도록 접촉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3면으로 계속>

農水產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명절과 음식장만

다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해마다 되풀이하는 송구영신의 감회이지만 우리는 새해 새아침에 즈음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께 차례지내고 어른과 친지들에 세배를 올리면서 이 한해 또한 건강하고 다복하게 지내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정초에 이웃과 친구들을 찾아보고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을 맞고 보내는 풍속은 우리 민족만이 자랑할 수 있는 미덕이요 전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전부터 너무 정에 겨워살아온 탓에선지 우리는 식사를 장만하는데 있어 간혹 분에 넘치게 흥청거리고 낭비하는 습성이 있는듯하다。 특히 명절때나 잔칫날일수록 그러하다。 이러한 도에 넘치는 식생활습관은 자칫 식량의 낭비를 촉진하고 급기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경제가 날로 발전하고 세계가 한 이웃인 국제화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식습관을 현명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첫째、음식장만은 식구와 손님수를 생각해서 알맞게 준비해야 한다。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명절이나 관혼상제와 같이 많은 음식이 필요할때에는 식단을 미리 짜서계획성 있는 상차림을 하는 것이 낭비를 막는 첫째요건이 될 것이다。 장보기는 미리 메모를 하고 갔다가 시장을 한바퀴 둘러본 뒤 차례대로 사는 것이 좋으며、오전에 일찍 갈수록 신선한 것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후에 가면 같은 물건이라도 비교적 값싸게 살수있는 잇점이 있기도 하다。

둘째로、차려진 음식을 먹을때에는 밥과 반찬을 자기가 먹을 만큼씩만 덜어서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밥을 큰 그릇에 가득 담아 내 놓았다가 이를 다 먹으면 좋지만 밥이 남게 될 경우 버리거나 식은밥 처리에 난감해질때가 많은 것이다。 남은 밥과 먹다만 반찬에는 아밀라제란는 효소가 묻어 있어 당화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남은 음식이 빠른 속도로 변질될 뿐만아니라 위생적으로도 위험하다。

세째로는、식사의 사전 사후 과정에서의 낭비를 막아야겠다。 우리는 조리과정에서 막대한 식량을 낭비하고 있으며、또한 설겆이 등을 통하여 남은 밥을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마구 버리는 일도 흔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조리과정에서 버려지는 식품은 어패류의 경우 40%나 되며、과실류는 21%、채소류는 17%나 된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식품속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 많은 비타민과 칼슘、철 인등 무기질등의 영양소가 손실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째로、식사는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간의 신뢰감과 소속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식사분위기가 엉망이면은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족끼리거나 혹은 명절때 여러친족들이 모였을때에는 식사시간이 즐거운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친화와 여유를 즐겼던 우리고유의 식사문제를 계승 발전하는데 노력하여야겠다。 국민모두가 한끼에 한수저씩만 낭비를 막는다 하여도 연간 약 3백만섬의 쌀을 절약할 수 있다고한다。 우리들은 이같은 절약정신을 바탕으로 균형있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가족의 건강과 나아가 나라의 부강에 이바지 할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 정성을 다하여 조상의 은공을 기리고 정다운 이를 접대하는 것은 그 그윽한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지 밖으로 나타난 호사스런 겉모양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인정이 넘치는 미풍양속은 계속하여 살려나가되 허례허식과 낭비풍조는 성숙된 시민정신으로 슬기롭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謹賀新年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경상남도 지부

지부장		김정만
부지부장	〃	안경식
함양군 사무소장		김창한
충무시	〃	이영갑
양산군	〃	김장헌
김해시	〃	하정섭
거창군	〃	황조연
마산시	〃	정선창
거제군	〃	전재택
밀양군	〃	이종수
삼천포시	〃	하백권
사천군	〃	강명기
산청군	〃	박원래
울산시	〃	김정현
울주군	〃	한오우
의령군	〃	성기수
함안군	〃	강상수
진양군	〃	주수득
진주시	〃	양성진
김해군	〃	장세국
창원시	〃	김은중
통영군	〃	김계판
하동군	〃	허영호

1987년 1월 20일